

식량난(食糧難)을 대비하자

농민신문社 편집역 金 榮 一

1. 세계의 식량사정

식량비상. 녹색혁명으로 인구증가

를 뛰어넘으리라던 부푼 희망은 최근 잇단 이상기후로 인한 減産으로 식량난의 위기의식을 자아내게끔 했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야기된 석유 문제는 세계경제를 냉각시키더니 끝내 후반에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식량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식량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려 얻는 선물이다. 그러나 농업보다는 공업우선의 정책과 인구폭발, 공해, 도시화등의 인위적인 조치로 농업부문은 축소재생산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때마침 이상기후까지 가열하여 더욱 증산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있다.

「유엔」에 설치된 세계식량이사회는 80년 6월 「탄자니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80년대를 『식량위기의 10년』으로 규정했다.

「에드아드르 사우마」 세계식량 및 농업기구(FAO)사무국장도 연례식량보고서를 통해 세계농산물생산은 「한계증가」만을 기록했을뿐 1인당 식량 및 농산물 생산은 연 2년째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80년 7월 1일 현재 주요국의 곡물재고는 1억 9천 1백만 「톤」으로 76년 이후 최저수준에 달했고 81년 중반에 세계곡물재고는 1억 5천 2백만 「톤」으로 격감되리라는 보고서도 있다.

이는 석유위기보다 타격이 클 식

◆ 식량난을 대비하자 ◆

량난의 시대가 왔음을 실감케 해주 고있다.

세계식량긴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의 절대량부족,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곡물생산국과 소비국의 격심한 偏在, 곡물 「메이저」의 영리추구에 의한 유통상의 문제, 증산을 위한 투자의 부족등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가운데 식량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것은 식량의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고 이를 최대로 이용하는 대생산국의 횡포이다.

석유가 석유수출국가에 의해 무기화가 되듯이 식량도 이미 전략물자로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했다.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의 대 석유수출국 정책에서 나타났다. 이 석유수출국가가 유가를 올릴적마다 산유국에 대해 석유값을 낮추라고 강요하고 그렇지않으면 식량을 대주지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침공시에 미국은 대소 곡물금지수로 맞섰다.

2. 식량난 타개의 길

그러면 점차 광란하는 식량문제에 대처할 길은 없는가.

「사우마」사무국장은 그 대책으로 세가지를 들고있다.

첫째는 농민들이 증산을 위한 의

욕을 갖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펴나가야한다. 농업생산이란 농민이 생산한 결과이며 수백만의 농민의 총화를 뜻한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동시 생산자를 자극하기위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주어야한다.

둘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폭을 크게 늘려야한다. 원조대상도 건물·공장·도로등에 치중하는 경향이고 그러다보면 농업개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지원할 때에는 농업분야에 최소한 3분의 1은 할당되어야 한다.

세계 新국제경제질서의 전제조건으로서 신국제식량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식량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상적인 국제경제질서가 확립될수 없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식량문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소비구조는 고급화·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고급식품인 축산물과 경제작물의 수요가 늘고있다.

한편 공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양질의 농지가 점차 잠식되고 농업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유출되는

등 농업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산물의 수입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농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최근 불안한 국제식량사정은 78년~80년 연 3년간의 흉작에 대처한다는 소극적 대응에서라기 보다는 식량의 안정공급이

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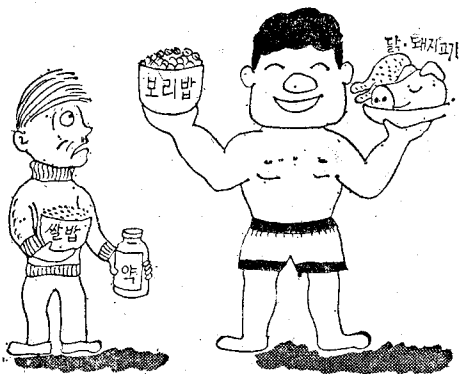
「세베카」는 『자립에의 커다란 첫 걸음은 만족스런 뱃에 있다』고 말했다. 호전적인 복피를 대치하고있는 우리로서는 안보문제로써 식량을 전략물자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식량문제는 증산과 소비절약으로 귀결된다.

80년부터 시작된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은 증산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다수확일변도 영농시책의 수정을 뜻한다.

이와함께 식량절약 및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 더 생산하느냐』는 문제와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앞으로 양정의 좌표를 설정했다는 의미에서 기대된다.



다수확에는 한계가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란 면에서 증산이 제 1차적인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식량을 알뜰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농업전체현황을 종합해볼 때 쌀 4천만섬 이상을 매년 계속 생산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농업전문가의 진단이다. 여러가지 농사조건이 좋을 경우 4천만섬을 훨씬 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근 평년작인 3천백만섬이하로 내려갈수 있다는 것이다.

4. 식량을 아끼자

변화하는 식품소비「패턴」에 뒤따르지 못하는 식량생산에서 양정의 고민을 엿볼수 있다.

과거 62~79년간의 우리나라 식품

◆ 식량난을 대비하자 ◆

소비「패턴」을 곡종별로 보면 쌀은 62년의 113.9kg에서 현저히 증가하여 70년도에는 최고 136.4kg을 기록했고 쌀소비억제시책을 실시한 72년~77년기간중에는 비교적 낮은 120~130kg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77년말에 쌀소비규제를 전면 해제한 결과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 78년에는 134.7kg 79년에는 135.6kg을 기록했다.

보리는 74년의 39.9kg에서 78년에는 18.1kg으로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다. 밀·옥수수·콩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서류와 잡곡은 최근 소비량이 줄고있다.

이같은 곡종간의 소비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쌀은 모자라의 국으로부터 의화를 써가며 수입해야하고 보리는 먹지않은채 남겨두는 현 상황—.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의 소비가 늘게되면 곡물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쌀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보리소비를 의면한채 말이다.

흔히 한나라의 영양상태는 그나라의 건강수준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나라의 국력을 좌우한다고 한다. 『쌀이 주식』이라는 고

정관념이 어려운 식량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식생활이란 단시일에 바꿀수 없는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생활속에 침투하는 국민교육이 필요하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놓아야 제대로 손님접대를 했다는 생각도 하루 속히 불식할 과제이다.

그리고 생산후 소비까지의 과정 즉 유통·가공·소비단계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수확할 때 19만섬, 말릴때 1백 14만섬, 탈곡 때 19만섬, 도정때 1백 71만섬 등 모두 4백 18만섬이나 손실된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질보다는 양위주의 식생활」 「식사는 반드시 밥」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식생활관은 점차 심각해지는 식량난시대를 맞아 탈피해야할 숙제이다.

식량문제는 더 생산하고 더 아끼면 해결된다. 이를 위해 생산농민은 식량의 중요함을 알고 증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 일반 소비자도 식량의 귀중함을 알아 밀알 하나라도 아끼는 새로운 食糧觀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